

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강화... 대기업 부당이득 방지 '총력'

환경부,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
할당량 15% 이하로 줄여야 할당 취소
자산운용사·은행·보험사 시장 참여

정부가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
규정을 정비한다. 배출권 시장 참여자
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개인도 배출권
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
할 예정이다.

환경부는 '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
및 거래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을
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
한다고 3일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'배출권거래법'에서
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
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그간 문
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



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. /뉴시스

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.

우선 주요 언론, 국정감사 등에서 지
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
한다.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

의 50%에서 15%로 상향해 정부의 배
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. 별도의 노
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
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

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.

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
이 할당량의 50% 이하로 감소하는 경
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
을 취소할 수 있었다. 이러한 이유로 기
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
배출량이 줄어들면 남은 배출권을 판
매해 일종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
구조였다.

'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자'의
범위도 확대한다. 기존의 할당대상업
체,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
에서 집합투자업자(자산운용사), 은행
및 보험사,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
고,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
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.

아울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
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

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, 환경부 장관이
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
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
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.

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
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환
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
렴한 후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
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
할 예정이다.

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
"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
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
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, 배출권
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
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"이라고
전했다.

/김대환 기자 kdh@metroseoul.co.kr

“기후변화 등 대처해 재배 곡물 다변화 시급”

홍문표 aT 사장, 기자간담회

김치·라면 등 세계 제패엔 역부족
“국민들에 먹거리 제공이 aT 역할”

지난달 취임한 홍문표 한국농수산식
품유통공사(aT) 사장이 3일 식량을 무
기에 비유했다. 그는 식량이 없으면 안
보도 없다며,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할 재
배 곡물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. 해
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김밥과 관련해서
는 본질이 서구의 햄버거와 별반 다를
게 없다고 했다. 이어, 돌풍이 머지않아
식을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.

홍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
를 갖고 “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
고 농어민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
통공사의 역할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

국회 농해수위 등 의정 경험이 풍부
한 홍 사장은 ‘식량이 곧 무기’라는 견
해를 국회에서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
고 했다. 그는 “처음엔 남북관계 때문에
(동료 의원들이) 거주장스러운 단어로
봤다”면서도 “이제는 여럿이 동의한다.
쌀만 주로 생산하는 나라에 기후변화
및 재난, 전쟁 등이 닥쳤을 때 대비를 할
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“이제는 5곡
으로 가야 한다. 국제사회에서는 우리



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사장이 3일 오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/aT

만 쌀을 식량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, 세
계는 밀, 콩 옥수수 등 5곡을 식량개념
으로 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대한민국 식품 수출에 aT가 사명감
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. 홍 사장은 김치
와 라면의 인기를 언급하면서도 유명세
가 예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고 했다.
“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식품을 상당히
선호하지만, 이제는 전 세계를 커버하
기는 어렵다”라는 게 그의 견해다.

좋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십분
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 그는 “지금

김밥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보
다 조금 더 좋은, 창조적이고 도전적인
새로운 것을 만드는 대한민국, 또 농업
농촌 자원을 기르고 보호하고 이들을
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이 돼야
강한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한다”고 말
했다.

미래농업인 스마트팜에 대한 의견
도 밝혔다. 겨울에도 수박, 오이가 생
산되는 사계절 스마트팜을 해야 한다
는 것이다. 그는 “돈이 많이 들어가지만
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, 올해는
몇 동, 몇 개 이렇게 5년만 하면 대한민
국도 80%는 스마트팜을 할 수 있다”고
했다.

준비가 안 된 곳에 로비하면 정책자
금만 나갈 뿐이라고도 했다. 그는 “곰
곰하게, 현지출장도 나가보고, 스마트
팜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구조적 문
제까지 아울러서 1년에 3개까지만 해
보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사시사철
농업이 가능해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
홍 사장은 취임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
(충남 홍성·예산)으로 제21대 국회의
원을 지냈다. 지난 2008년부터 2011년
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
했다. /세종=김연세 기자 kys@

韓 반부패 정책, 중남미 4개국 공무원에 전수

권익위, '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'

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,
청렴포털 등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중
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
수된다.

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
3일~11일까지 9일간 '다국가 반부패 역
량강화 연수' 스페인어 과정을 첫 운영
한다고 3일 밝혔다.

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,
페루 총리실,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,
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
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.

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
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
참여하고,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
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
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높

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.

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
공공행정상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중
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
가, 부패-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
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.

또 청렴포털,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
고 시스템,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
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
을 소개하고,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
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
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할 예정
이다.

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
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
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
과정을 운영 중이다. 그간 70개국 383명
의 외국 공직자들이 참여했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

KIAT, 우즈벱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 총력

국가희소금속센터서 현장 간담회
핵심 원천기술 과제 발굴 등 수행

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이 우즈
벱 희소금속 공급망 기반 구축사업을
총력 지원한다.

KIAT는 지난 2일 오후 인천 송도 소
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
센터를 방문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
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
혔다.

국가희소금속센터는 현재 산업부 산
업통상개발지원(산업ODA) 사업의 지
원을 받아 우즈벱키스탄 치르키키시에
있는 '한-우즈벱희소금속센터' 구축과
운영을 전담하고 있다.

한-우즈벱 희소금속센터는 한국생
산기술연구원과 우즈벱 국영기업 알팔
릭 광업공사 주관으로 양국 정부 지원
하에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열었다.

한-우즈벱 희소금속센터는 올해 연
말 시험생산동 가동을 앞두고 있어 향
후 우즈벱의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상

용화 연구개발과 양산에 필요한 실질적
기반이 마무리될 전망이다.

희소금속은 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
단산업 발달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
있어, 수급 안정에 국가 전략적 노력이
필요한 분야다. 특히, 광물 대부분이 일
부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다변화가 시
급하다.

한-우즈벱 희소금속센터는 현지 매
장량이 풍부한 텅스텐, 몰리브덴과 같
은 희소금속을 대상으로 원료의 순도를
높이는 제련 기술 고도화 연구에 먼저
착수했다.

이를 기반으로 향후 반도체, 전자부
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희소
금속 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.

KIAT는 향후 한-우즈벱 희소금속
센터에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생산을
위한 연구개발(R&D) 지도, 전문가 교
류, 인력 양성 등을 추진, 희소금속 신
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
할 계획이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

국무회의장에 깜짝 등장한 '농수산물 추석 선물세트'

송미령·강도형 장관 선물세트 홍보
베이글·한우·조기·전복 등으로 구성
추석명절 맞아 최대 50% 할인 판매

국무회의장에 국내산 쌀로 만든 베이
글 등 '추석 민생 선물세트'가 등장했
다. 시중가 대비 최대 절반 수준인 농산
물과 수산물 선물세트다.

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
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
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수
산식품을 활용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
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소개했다고
밝혔다.

소비자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 등을
위해 최대 50%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
한다. 두 장관은 제수용 제품과 소비 촉
진이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된 이 선물
세트를 올해 추서에 가까운 분들과 마
음을 나누는 데 활용해 줄 것을 국무위
원들에게 제안했다. 농식품부는 가루쌀
을 이용한 베이글·과자·식물성 짬뽕료
등 쌀 가공식품을, 해수부는 전복 및 해
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·양갱 등
을 선보였다.

한덕수 국무총리는 “이번 추석을 맞
아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따뜻한 마음
을 전하고, 농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

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
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송 장관은 “국가 최고회의기구로 언
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무회의장에
서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
해,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
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
움을 드리고 싶다”며 소감을 밝혔다.

강 장관은 “이번에 준비한 민생 선물
세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
을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
“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
리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
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/세종=김연세 기자